

축협의 위상과 업종별 협동조합의 육성방안



송 찬 원
축협중앙회장

을 해로 발족 13년째인 축협중앙회는 그 계통조직인 회원조합과 함께 이제 명실 공히 한국축산 발전의 모체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굳혀가고 있다.

발족 초기 축협중앙회는 설립 이념인 양축가 조합원이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그리고 축산업의 발전을 실천하기 위해 우선 그 실천 주체인 회원조합을 비롯한 계통조직의 자립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이를 토대로 축협은 축정 당국과 보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축산시책이 축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축협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축산시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였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축산업 최대의 위기였던 1984~'85년 소값과동때 2년7개월에 걸쳐 축협이 수행한 대대적인 소수매사업이라든지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등 전국적인 거대한 축산시책사업들을 축협은 전 계통조직을 동원하여 훌륭하게 수행하였고, 또 계속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축협조직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수습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축산시책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축산발전을 위한 축협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크다 하겠다.

또한 축산시책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축산물

의 생산과정과 소비과정은 물론 양축가 조합원의 교양·문화 등 일반사회 전반에 걸친 모체로서 급부상하게 되었다. 때문에 이제 양축가의 효율적인 축산경영은 축협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정부도 축산시책을 능률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축협을 구심점으로 해야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실로 짧은 기간에 이루어낸 괄목할 성정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제 축협이 명실공히 축산발전의 모체로서 급부상하기 까지 그 실천주체인 회원조합을 어떻게 육성하여 왔으며, 특히 대내외 여건변화와 축산업의 발전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축협조직의 근간인 지역조합과 업종조합, 다시말해 회원조합의 육성과 지도·지원을 위한 중앙회의 역할이 어떠했는가?

축협중앙회는 출범직후 곧바로 회원조합에 대한 새로운 지원체제를 강구해야만 했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회원조합이 경영상태와 제반 경영여건 면에서 매우 부실한 형편이었고, 이들 회원조합으로서는 양축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도를 수행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회 출범 초창기의 회원조합 육성책은 조합의 자립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중앙회 출범 이후부터 1992년까지 조합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중앙회의 대 회원조합 지원은 조합육성자금 937억원, 조합경영 보조자금 513억원, 경제사업 및 시설자금 7,718억원 등 총 9,16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계량적 지원외에도 조사, 홍보, 교육 등 비계량적 지도·지원결과 1992년 말 현재 경영자립을 이루어낸 조합은 전체의 75%인 137개 조합에 달하게 되었다.

표1. 지역조합과 업종조합의 성장추이

구 분	지 역 조 합		업 종 조 합	
	'81년초	'92년 8월말	'81년초	'92년 8월말
조 합 수	92개소	145개소	8개소	41개소
조합원수	22,940명	252,560명	4,632명	22,869명
자 본 금	8,224백만원	233,339백만원	7,106백만원	95,096백만원
사업규모	146,970백만원	7,864,919만원	63,373백만원	1,619,266백만원

중앙회의 지원과 조합 자체노력으로 자립이 달성된 조합과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개발, 신용사업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해 왔다. 물론 신설조합에 대해서는 경영 약체 조합과 마찬가지로 조속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왔다.

이는 축협법 및 정관에 명시된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이라고 하는 중앙회 설립목적의 충실한 실천결과였던 것이다.

한편,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 축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변화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수입개방 압력을 들 수 있다.

현재 축산시책은 이 수입개방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시말해 신농정의 일환으로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품목별 조합”도 거시적으로 보면 이같은 맥락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회 발족이후 12년간 지역조합과 업종조합의 2원적 조직체제로 유지해온 ‘축협조직’도 이같은 여건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조직형태로

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직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전해 간다고 볼 수 있다.

표2. 협동조직의 발전형태

초기 단계	발전 단계	성장 단계
종합적 조직	품목별 조직	기능별조직 (동일품목)
1농가 1조합원	1농가품목 따라 복수조합원	영농편의에 따라 수개조합의 가입

협동조직의 단계별 발전 형태 측면에서 보면 축협은 현재 초기단계에서 발전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초기단계의 조직형태는 축협의 지역조합과 같은 종합적 조직이며, 발전단계의 조직 형태는 축협의 업종조합과 같은 동종조직을 의미하는데 이 둘사이의 특성을 비교하면 표3과 같다.

표3. 지역조합과 업종조합의 특성

구 분	지역조합	업종조합
조합수	이질적	동질적
조합원수	소구역 조직	광역조직
자본금	다량다종	대량소종
사업규모	지역개발 효과	품목개발 효과

표2,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이 더욱 전문화 되어가는 추세에서는 협동조합의 조직형태도 발전단계의 품목별 조직 즉 업종조합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축협중앙회는 개방화, 전문화 추세에 부응키 위해 지속적으로 업종조합을 육성하여 왔다.

이것은 발족당시 2개축종 8개소에 불과하던 업종조합수가 무려 8개 축종 41개소로 늘어난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93년 8월말 현재 회원조합 186개 소중 업종조합은 41개소로 아직도 전체의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협동조직 발전 형태중 초기단계에 있는 145개소의 지역조합을 어떻게 개방화 전문화 추세에 걸맞는 조직형태로 전환시킬 것인가가 축협이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축협의 업종조합 육성방안은 무엇인가. 축협의 업종조합 육성방안은 기존 업종조합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아울러 지역조합을 업종조합으로 유도 전환하는 방안이 있는바, 후자는 크게 장기적 육성방안과 단기적 육성방안 두가지로 구분된다. 장기적 육성방안은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인데,

제1 단계는, 조합의 자립화 촉진,

제2 단계는, 특화 축종의 중점 육성,

제3 단계는, 축종 중심의 업종조합으로의 전환이다.

단기적 육성방안은

첫째, 대의원 선출제를 현행 소지역 대표제에서 축종별 대표제로 개선하는 것(정관계 개정)

둘째, 축산계 육성 방향을 기존 지역축산계에서 축종별 업종축산계로 전환하는 것

셋째, 조합별로 축종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 등이다.

축협의 업종조합육성방안이 이와 같이 세워진 까닭은 오늘날 우리 협동조합이 당면한 과제가 보다 많은 협동조합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조합을 지도 육성하는 조치를 더욱 철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며, 현재 행정구역 위주로 전국에 분포된 협동조합이 획일적인 종합사업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호경쟁이 아닌 보완적 체제로 개편하려는 의도에서이다.

이제 축협은 개방화·전문화 추세에 걸맞는 조직개편과 업종별 조합육성을 통해 가축·사료·생산기자재·경영정보·기술 등 축산경영 일반 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생산물의 제값 실현과 그리고 문화·복지·노후대책 등 양축농가가 필요로 하는 모든것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도지원하는 최적의 조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축협조직의 무제한적,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사무자동화·경영합리화를 통해 위와 같은 지도지원에 적합한 최소한의 최첨단의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뜻하는 것이다.

이같은 종합적 체계적 지도지원을 통해 양축농가의 생활전체가 축협과 연관되어 형성되고 발전해 갈 때 축협조직의 성장은 양축농가의 성장과 발전으로 직결될 것이며 이를 통해 축협과 양축가가 비로소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양계**

구
인

농장인력알선

구
직

양 계 · 양 돈 · 목 장

농장장·기사·목부·운전기사
수의사·감별사·사료영업·식당모 등
— 기타 : 전업종 취업알선 —

(주) 두 봉 인 력

(청량리역앞 미주상가5층)

전화 962-0101
FAX.962-0712